

# 지평 공익의 날 · 두루 창립기념일

JIPYONG 범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 2017년 사회 책임 이행 내역

### 법과 윤리

#### 01. 로펌 내 이익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지명 윤리헌장 존재(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 존재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노력 시행 등

#### 02. 위법행위 발견 시 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존재  
(윤리헌장 13조 :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절차)

#### 03. 공정한 전문가 활용

공직퇴임변호사 수입제한 의무 준수  
비변호사 고문의 숫자가 매우 적음(12명)

\* 위 표의 항목은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통계와 활동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차별금지과 인적 다양성

#### 01. 구성원의 다양성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전체변호사 중 35.3%, 파트너 중 18.9 %)

시각장애인 미국변호사 채용(2015. 9. 1.)

전체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7%로, 의무고용률 준수  
(해외지사를 포함할 경우 2.89%로 의무고용률에 미달)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근무

탈북민 근무

‘예비구성원회의(예비구성원변호사 모임)’ 보고서 내용을 수용·이행하고,  
‘소울(직원 모임)’ 등을 통하여 경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 02. 소수자 차별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존재  
(소수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활동을 주요 공익활동으로 설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사용

#### 03.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

성별,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미표기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노력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 0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호사 : 출산휴가 3건, 육아휴직 1건, 혼합사용 4건

직원 : 출산휴가 2건, 혼합사용 11건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4건, 육아휴직 1년 1건

임신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3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제 1건

출산으로 인한 인사평가(유학 대상, 승진)시 불이익 제공 금지

임신과 출산(육아) 대체인력 수급절차

- ① 기존 휴직자 복귀 시점 조율하여 대체
- ② 대체 불가시 신규채용  
(정규직 또는 휴직자 복귀 시점까지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검토)
- ③ 휴직 중인 직원 업무 대체 직원 지원  
(장기 부재 직원 업무 팀원 분담, 추가 수당 지급)

변호사 4년차, 직원 10년차에 안식휴가 제공(변호사 사용 14건)

### 기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기부, 자원봉사, 공익소송의 수행·지원, 무료법률상담,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 예비공익변호사 양성·지원,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 연구, 공익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입법지원

총 공익활동 5,935.29시간

상세내용은 공익활동 평가지표 참조(34~35쪽)

### 법조인 양성

#### 01. 수습변호사 연수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인턴 프로그램 시행

두루 공익 실무수습 프로그램 지원

#### 02. 로스쿨 실무과목 교육 지원

소속변호사들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실무과목 강사로 활동

### 적절한 사건 수임

#### 01.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수임 배제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 배제(윤리헌장 3조)

#### 02. 과도한 사건 수임 자제

탈법적 방법의 수임금지

과도한 수임 경쟁 지양

### 환경

#### 01. 탄소배출 감소 활동, 재활용품 사용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 종고책방 등 자원순환 운동 전개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품 사용 권장

#### 02. 환경 관련 NGO 지원

환경 공익소송 수행(송전선로 피해보상 관련 헌법소송 진행 중)

환경 관련 NGO 지원

###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

#### 01. 구성원 현황 등에 대한 로펌 정보의 공개

로펌 정보의 공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의한 정보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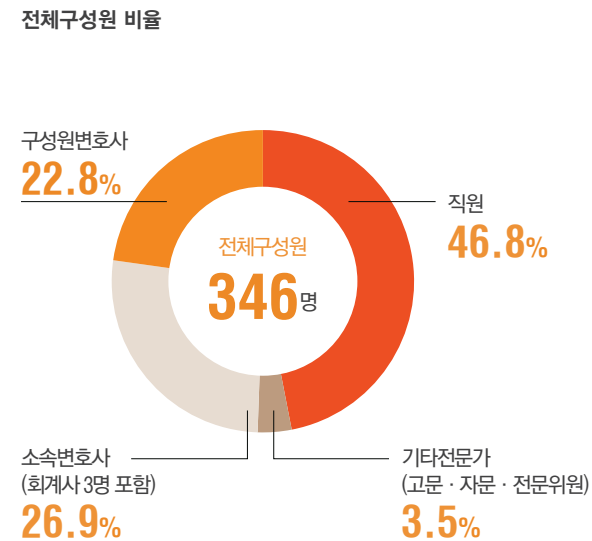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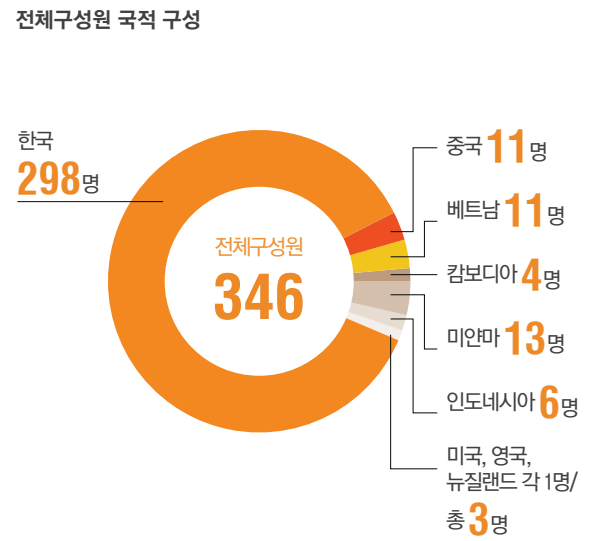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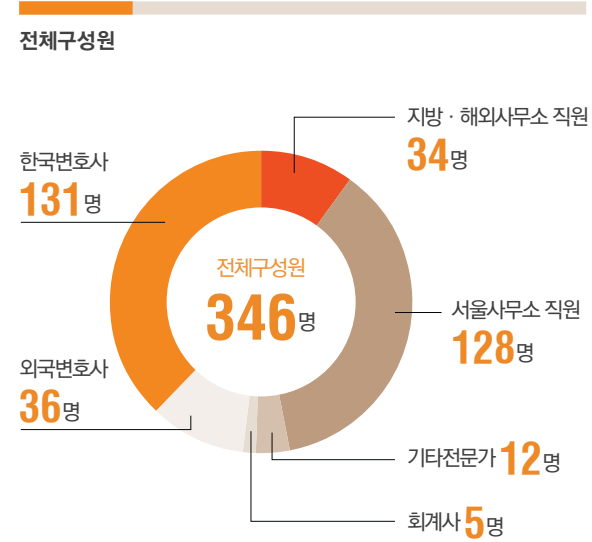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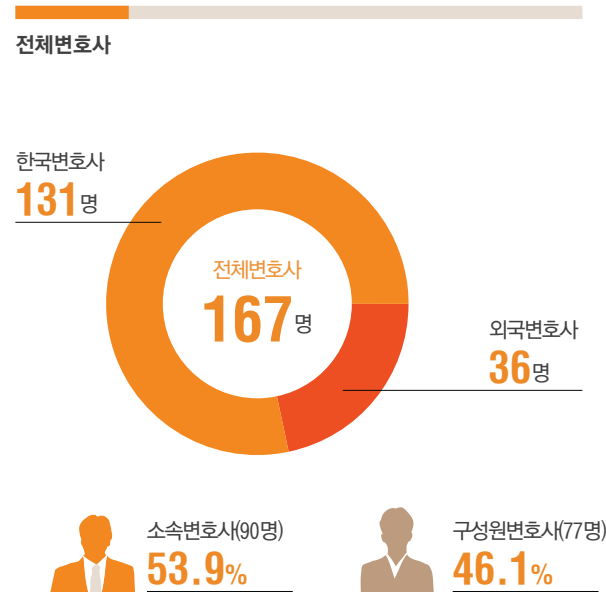
#### 02.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로펌 최초로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 구성원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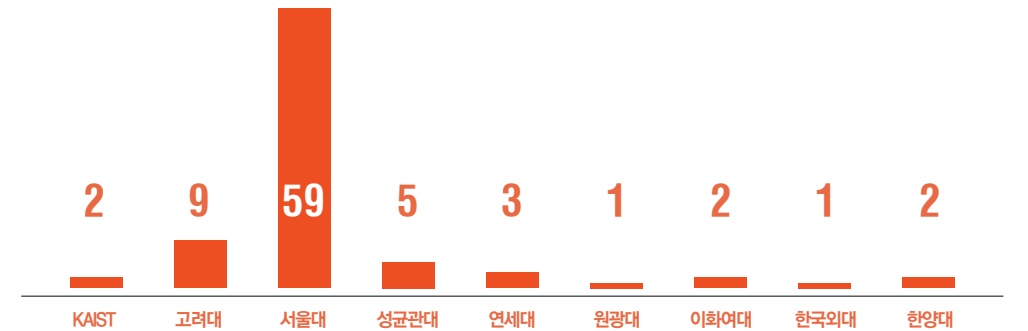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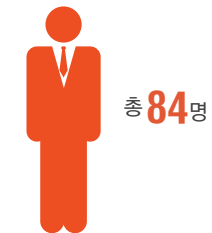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로펌,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지향하는 지평은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2017년 한국변호사 131명 기준)



## 학부(사법시험)별 변호사 구성 (2017년 한국변호사 131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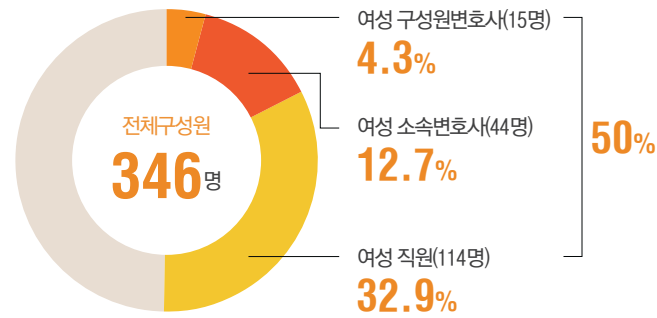


## 예비구성원의 제안에 따른 제도 개선

지평은 예비구성원 프로로 구성된 예비구성원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16년 말경 업무조건 등에 관한 여러 제안과 건의를 담은 예비구성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평 경영위원회는 2017년 초에 예비구성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많은 부분 수용하였으며 이를 연중 이행하였습니다. 예컨대 회사 행사방식을 개선하였고, 연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안식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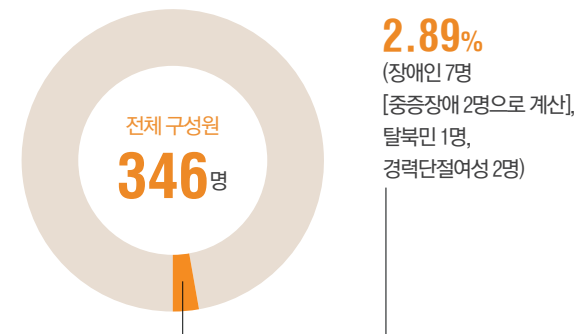
## 소수자 차별금지

### 전체구성원 중 여성 비율



\*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35.3%(59명/167명)

### 전체구성원 중 소수자 비율 (장애인, 탈북민 등)



\* 본사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7%로, 민간사업주 의무고용률인 2.9%를 초과



###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과 두루는 4월 2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 의무자는 아니지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자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장애인권소송을 이끌어온 임성택 변호사와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내 로펌에서 근무 중인 정진 외국변호사(미국)가 '다양한 몸, 평등한 삶'을 주제로 토크쇼 형식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외에도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권소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여성위원회 활동

지평의 전체구성원 중 절반 가량은 여성으로, 이는 채용과 업무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해온 결과입니다. 지평은 회사 내에 여성위원회를 두고,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 표슬비 변호사(여성위원회 멘티)

신입변호사로 지난 1년을 보냈는데, 회사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실제로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위원회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은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다른 팀의 다양한 변호사님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그룹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 특별한 점이 많은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여연심 변호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주셔서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다 같이 모여 서로 얼굴도 보고, 근황도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진행 중인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걱정거리를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았었는데, 비록 뽀족한 해결책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 받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회사나 동료 변호사님들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으며 회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깊어지기도 했고, 선배들의 고민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할지 잠시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저희 멘토링팀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변호사님들과의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채용

신입, 경력직원 채용 외에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도 단절 전 경력에 맞는 포지션에 따라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녀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전 직원들에게도 채용 건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여 범위를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채용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채희석 변호사(HR위원회 위원장)

HR위원회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 각종 자료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보(부모님 직업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에 포함된 사진이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진을 삭제하는 형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선발은 HR위원회의 추천과 경영위원회의 최종 면접 및 선발 결정이라는 2단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그간 문체점으로 지적된 특정 대학 편중에 관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턴 선발 과정에서부터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턴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2년 차 2학기 이후 선발 인원을 확대하면서 특정 대학 편중 문제를 완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HR위원회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은 기존의 제도 이외에 남성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안식휴가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는 사용기간 30일내에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유급휴가이지만, 2017년 지평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60일내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위 기간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평은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에 앞서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시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며 지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제도 도입

지평은 2017년부터 직원 중 장기근속자와 일정 근속기간을 경과한 예비구성원 변호사에게 안식휴가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프로의 경우 예비구성원 3년차(2주일), 4년차(1주일), 직원의 경우 10년차(2주일), 20년차(1주일)에 해당하는 안식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프로 및 직원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프로 3년차 예비구성원의 경우 75%정도 안식휴가 사용을 하였고, 팀별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법조인 양성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지평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77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턴 선발과 채용 과정에서 서울대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입니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실무수습	1차 : 2016. 12. 26. ~ 2017. 1. 6.	1학년 (8기)	19명	서울대 13명, 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국외대/경희대/건국대 각 1명
	2차 : 2017. 1. 9. ~ 2017. 1. 20.		28명	서울대 13명,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서강대/한양대 각 2명, 서울시립대/중앙대/전남대 각 1명
하계 실무수습	1차 : 2017. 6. 26. ~ 2017. 6. 30.	2학년 (8기)	17명	서울대 9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 고려대/한양대/아주대/부산대 각 1명
	2차 : 2017. 7. 3. ~ 2017. 7. 7.		13명	서울대 6명, 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아주대 각 1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 환경·자원 순환

### 환경실천소모임 활동

지평은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중고책방을 마련하는 등 자원순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평 사무실 각 층에는 소통과 휴식의 공간이자, 협력 강화의 공간인 라운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 8층 라운지에 자리잡은 ‘모두의 책꽂이’라는 이름의 중고책방은 라운지 중에서도 단연 높은 이용률을 자랑합니다. 중고책방은 환경실천소모임에서 2016년에 일회성 이벤트로 실시하였다가 큰 인기를 끌어 상설화되었습니다. 보지 않는 책을 내어 놓고, 다른 사람이 내어 놓은 책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운영방식이 간편하고, 작은 실천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IPYONG  
DUROO  
PRO  
BONO**



2017 지명 공익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 강정은  
강혜련  
김용진  
김우연  
김윤희  
김이태  
김지형  
김태형  
김학규  
류혜정  
박용대  
서준희  
여연심  
이동엽  
이상희  
이주언  
이태영  
임성택  
임지윤  
최정규  
최초록  
황인영

2017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서문용채
이사	강울리	서진하
	문영화	신중길
	여연심	심희정
	이혜영	안현정
	임성택	양영태
감사	김영수	오세훈
	임승혁	유정민
회원	강정은	윤재민
	강혜련	이공현
	구나영	이상희
	구정모	이소영
	김성수	이승민
	김용진	이주언
	김우연	이혜온
	김윤희	이 훈
	김태오	정미자
	김관수	최윤영
	박용대	최초록
	박호경	하지인
	배기완	한철웅
	배성진	황인영